

월요광장

2015년 광주, Status quo

〈현재의 상황〉



채 희 운
소셜기·광주여자대학교 교수

1. 축제가 끝났다. 광주에서 올해 있었던 가장 큰 국제 행사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 개관식’이다. 우리는 지금 그 두 행사 사이에서 있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광주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마음과 그것을 실천한 행동들이 성공의 첫째 요인이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관계 기관의 행사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공식 인력뿐 아니라 광주 시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가장 큰 비결이었다는 후문이다.

언제나 놀라운 일은 소위 ‘광주 사람’들의 열성과 그 밑도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다. ‘도대체 광주사람들의 저력은, 그 기원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은 36년을 살고 있는 내게 지금도 불가해한 세계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광주 사람을 광주사람들로 만드는 그 연대(bond)의 버리는 내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등 가장 역동적인 힘의 표출도 광주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뭐든, 광주 사람들이 ‘한번 해 보자’하고 달려 들면, 그것은 역사가 된다.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그 성과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들에 하나의 기준이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광주 사람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물론, 소위 중앙 언론의 횡포에 가까운 무관심은 우리들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아무리 메르스 사태, 성완중, 유승민 사태를 비롯한 국내외 사건들이 많았었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전라도의 행사로 치부되어 버렸다는 것은 노출된 ‘기사의 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다가올,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문화전당 개관식’을 위해서도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2. 다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생각하면 ‘다 된 밥에 코 빠치기’란 속담이 생각난다.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광주의 격정을 근심으로 바꾸었다. 처음과는 변형되고 축소되긴 했지만, 어떻게든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 일차적 마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문화중심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광주 시민 대다수에게는 그다지 살갓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때때로 궁금해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던져 보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비슷하다. “하고 있었제. 뭔지는 몰라도...” 이것은 다른 우려를 낳는다. 혹 ‘당신들만의 천국?’ 앞에서 말했듯이 광주 사람들의 역할은 뭐든지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는 광주 사람들의 연대성에서 출발한다. 브루스 알렉산더(Bruce Alexander)의 ‘Rat-park’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연대되어 있는 한, 유기체는 자신과 공동

체에 해가 될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적 질서를 위해 유대(bonding)하여 긍정적인 일들을 생산해 낸다. 그리고 광주는 그러한 연대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써 왔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이 된지는 몰라도, 어느 한 곳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그 소속 집단의 일반적 판단이라면, 이는 우려할 만하다. 특히 문학 콘텐츠가 그렇다. 도무지 문학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오페라나 회화 등 전시나 공연만이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문학가들의 무지나 정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관련 문화산업자(?)들의 사유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유니버시아드 행사에서 봤듯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바기오’나 ‘나오시마’의 오늘을 생각하라. 또 ‘그로노블’은 어떠한가? 문화란 향유와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now and here’의 현장성이 그 기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조칼럼

자(子)의 복리



이 건 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간만에 온전히 쉬 수 있게 된 주말 아침, 꼬질꼬질해진 제차한테 미안한 마음에 동네 세차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제가 이혼소송을 대리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니, 반 년 정도 만에 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함께 커피 한잔을 하며, 이저저것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어떠신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이제 다시 좋은 분 만나셔야 하는 건 아닌

지. 제가 그 분의 인생에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내심 흡족하더군요. 그러던 중 그 분께서 지인 분의 문제로 자문을 구해 오셨습니다. 지인 분께서 일 년 전쯤 이혼하고 그 때부터 아이들은 전 남편이 맡아 키우고 있는데,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이들이 본인과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학교 다닐 때 가족법 수업 시간이면,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의 복리’, 영어로는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쉽게 설명하자면, ‘무엇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지’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문제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친권, 양육권에 관한 판단은 부모가 아닌 아이의 행복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혼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소송이 진행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격해지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때론 오만 정이 떨어지도록 해서라도 이혼하고 싶

은 마음에, 또 때론 이왕 이혼하기로 한 것이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하는 마음에 과장된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있는 진실 그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부부들의 경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의 맞벌이로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담당해왔던 가정의 경우,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사위 혹은 며느리의 혐담을 아이에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모들 스스로가, 친권·양육권자 지정시 아이들 스스로의 의사가 어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혐담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어쩌면 본인이 원하던 바대로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요? 이미 아이에게, 자신의 어머니 엄마 중 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은 그러한 부모의 나쁜 모습을 닮은 아이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아이의 자존감도 반토막이 났겠지요. 부부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는 배우자라면, 아이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할 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해도, 아이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 존경스러운 부모와 그러한 부모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랑은 올바른 성장의 바탕이 되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쪽일수록, 아이에게 두 서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아빠, 엄마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긴 했지만, 네 아빠, 혹은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너는 이렇게 헤어진 아빠, 엄마에게도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그리고 아빠,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社 說

화물차 음주·난폭 운전 적극적인 단속을

음주·난폭 운전을 일삼는 화물차는 ‘도로 위의 살인 흉기’와 다르지 않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인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수 승용차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빛은 참사였다. 안전을 내팽개친 채 질주하는 화물차에 대해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실 화물차의 위험한 운행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는 더욱 그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873건의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는 1289건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사망자(63명) 비율은 더 높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49명)의 25%에 달했다. 화물차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 큰 문제는 화물차의 음주 운전이다.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의 음주 사

고는 무려 140건 달한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1종 대형 면허 취소자도 986명이나 됐다. 이 정도면 만취 화물차가 어느 순간 우리를 덮칠지 모를 일이나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가히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화물차 업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불평등계약에 시달리고 화주의 요구에 못 이겨 과적은 다반사이며 또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로서는 과속·난폭 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불편한 현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은 음주·난폭 운전 등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장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는 등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일감 배당 금지 등 화물차 협회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내년 착공 무산 도시철도 2호선 어느 세월에...

민선 6기 들어 재검토 논란이 일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내년 착공이 무산됐다. 지난 2월이면 끝났어야 할 기본계획설계 용역 중단과 푸른길 구간 훼손, 백운 고가차도 사업비 미확보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이러한 문제가 잘 풀려도 실시 설계에만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니 내년 하반기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남구·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연장 41.9km로 사업비 1조9053억 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2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량선정도 하지 못한 채 기본설계용역이 지난 3월부터 4개월째 무기한 중단돼 있는 상태다.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기본계획에는 차량 2량 편성이 반영됐는데 러시아워 시간대 등을 고려해 수송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 편성이 돼야만 역사 규

모,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짜 맞춰 줄다는 것인데 차량을 선정하지 못해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푸른길 공원을 지나는 2호선 일부 구간과 관련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살뜰해야 한다. 예산 절감을 위한 비(非)시가지 구간 설치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호선 노선에 포함된 백운광장 고가도로 철거와 건설비 확보도 빠른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2호선 건설의 전체 조건인 백운광장 교차로(교차) 철거·건설 사업비 29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광주시로서는 우선 백운고가가 정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광주진료소’의 나눔·연대 확산하려면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지난 17일 캄보디아 캄퐁스퉀이션 광주진료소 개원 1주년 행사가 진행됐다. 그 자리엔 윤장현 광주시장, 조영표 시의회 의장, 오우 삼 오른 주지사가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으며, 2000여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광주의료진의 뛰어난 실력과 헌신적 봉사활동 또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캄퐁스퉀 주민들은 왜 광주의료진을 신뢰하는 것일까? 캄보디아 민중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억압한 대량학살을 경험했다. 킬링필드(The Killing Fields). 1975~1979년, 폴포트 정권은 캄보디아를 원시 공산사회로 되돌리려 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으며, 국가기간 시설도 파괴했다. 교육과 의료 인프라도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더욱이 모든 의사와 간호사를 살해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이후 국제사회는 40여년 전의 파괴를 복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최빈국이며, 빈부격차와 지역 격차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80년 5월 광주지역의 의료진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현대사에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접했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집단발포와 무자비한 폭력은 당시 전남대병원, 기동병원, 적십자병원 등 각종 병원을 전센터의 야전병원으로 만들었다. 그 상황 속에 형성된 의료진의 헌신적인 대처,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과 자원봉사 등이 5월 광주의 경험이자 미담이다. 우리는 이것을 ‘광주 정신’ 중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광주의 역사적 경험은 광주만의 경험이다. 다른 도시는 흉내낼 수 없다.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의료인들은 단순 해외 의료 봉사를 넘어 ‘나눔, 연대, 희생’을 모토로 하는 ‘광주진료소’를 창조하고 있다. 캄퐁스퉀와 광주의 만남은 광주로부터 출발한 ‘아시아 인식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는 미국 국제정치학자인 피터

하스(Peter M. Haas)가 제시한 용어로 유럽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광주진료소의 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 광주진료소는 광주의료 5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칫 인맥 중심의 소그룹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특히 광주진료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희망나무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국제단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두 번째, 광주진료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지방외교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외교 차원으로 접근하여 광주진료소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일본 센다이, 중국 광저우, 장쑤이, 산서성, 낙양시, 미국 샌안토니오, 인도네시아 매단시 등이 있다. 여기에 광주진료소가 위치한 캄퐁스퉀나 제2 진료소가 들어서서 네 팔의 도시 등을 자매도시로 정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한다. 향후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광주진료소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광주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나눔과 봉사정신 함양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광주진료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지난 2월 (사)희망나무의 대표단이 제2 광주진료소 설립을 위해 네팔을 방문한 바 있다. (사)희망나무와 같은 민간NGO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구조화동이 가능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광주진료소를 광주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외국인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다. 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7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인구의 1.14%에 해당되며, 2013년도 대비 1507명이 증가했다. 프랑스 SOS그룹이 운영하는 장조레스 병원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다. 이 병원은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이나 가난한 이들이 많이 사는 파리 북부의 지역사회와 밀착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경영전략으로 적자를 벗어났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無 等 鼓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국들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을 열어 나치 독일과 유대인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했다.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시 ‘정의의 전당’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선 살아 남은 나치 최고위 인사 23명 중 20명에 대해 전쟁 도발과 전쟁 범죄, 반 인류 범죄 혐의를 몰았으며, 이 가운데 20명이 처형됐다. 국제사회의 나치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민간기구와 개인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 몸을 숨긴 나치 전범은 이를 말해 준다. 전쟁 범죄자이자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지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주, 평생을 독일 나치 전쟁범죄자 추적에 바쳐 온 프랑스인 70대 노부부가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볼리비아에 은신해 있던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의 대장이자 ‘리옹의 도살자’로 유명한 클라우스 바르비의 정체를 밝혀내 종신형을 받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독일 정부는 이들이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독일과 세계의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훈장을 수여한 이

유를 설명했다. 부부는 전범 추적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도 이미 받았다. 전범을 단죄하려는 개인의 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악몽 같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를 경험한 우리는 그러나, 전범을 끝까지 찾아내고 단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널리 알려진 전일 부역자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우리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친일파 선정비

이를 말해 준다. 전쟁 범죄자이자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지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주, 평생을 독일 나치 전쟁범죄자 추적에 바쳐 온 프랑스인 70대 노부부가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볼리비아에 은신해 있던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의 대장이자 ‘리옹의 도살자’로 유명한 클라우스 바르비의 정체를 밝혀내 종신형을 받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독일 정부는 이들이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독일과 세계의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훈장을 수여한 이

이를 말해 준다. 전쟁 범죄자이자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지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주, 평생을 독일 나치 전쟁범죄자 추적에 바쳐 온 프랑스인 70대 노부부가 독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볼리비아에 은신해 있던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의 대장이자 ‘리옹의 도살자’로 유명한 클라우스 바르비의 정체를 밝혀내 종신형을 받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독일 정부는 이들이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독일과 세계의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훈장을 수여한 이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